

엘리자베스 캐서린 룯다

수 년 전 나는 병아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노른자처럼 아주 셋노랑고 항상 도도한 걸음걸이로 방바닥을 뛰어다녔는데, 가끔 내방 카페트 실밥에 발톱이 걸려 주저앉을 지라도 내게 창피한 내색한번 하지 않는 그런 병아리였다.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야 했지만 그것은 무척이나 힘든 문제였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 웬만한 이름은 그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네 도서관에 몇 일밤을 병아리 작명사전을 붙들고 고민해야 했다. 내가 이름을 지으며 머리를 싸맸던 몇 주 동안 그녀는 그냥 200원짜리 병아리였다. 조그맣게 울면서 노랑게 뛰어다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은 뼈약이나 짹짹 이로 그녀를 불렀는데 그녀는 그 이름이 천박하다고 생각했는지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몇 주를 고민한 끝에 그녀에게 ‘엘리자베스 캐서린 룯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 그 이름은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과 유명한 소설에서 매력적인 요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산 주인공들의 이름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었는데 나는 그 이름을 다 짓고서는 무척이나 벅찼었다. 다행히 그녀는 그 이름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다 부르지 않는 것을 아주 탐탁찮아 했으나, 우리가족은 편의상 그녀를 엘리자베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녀를 돌보던 사람으로서 이제와 고백하자면 나는 그녀의 혈통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동양 병아리인지 서양병아리인지 설사 아랍계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오로지 그녀의 기품있는 걸음걸이에서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가끔 내가 거실에 벌러덩 누워있고 그녀가 내 앞으로 지나갈 때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소중한 나의 병아리는 그 어떤 고양이보다도 도도했고 가끔은 그녀의 조상이 고양이보다 아닐까하는 의문마저 들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것은 일광욕이었다. 늘 거실에서 유일하게 오래도록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누워 허리를 구부리고 눈을 감았다. 그때마다 창문에서 누런빛이 들어와 이 조그만 병아리 하나를 모두 탈색시키려는 탓에 나는 조바심이 났었다. 그러면 나는 마치 그녀가 하얗게 탈색될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곤 했다.

나는 늘 그녀 앞에 팔을 늘어뜨려 쭈그려 앉아있었다. 그럴때면 손가락을 타고 올라오는 그 앞모습을 발견하고는 웃음이 나왔었다. 그녀는 눈을 지긋이 감고 총총 내팔을 걸어다녔다. 그 표정을 뭐라고 놀려줬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그럴듯한 말들은 늘 떠오르지 않았다. 나에게 그 표정을 묘사할만한 글재주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녀가 좋았다. 그녀는 자신이 닭인 척 보이려 애써 노력하지도 않았고 나의 관심을

받기위해 특별히 열성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수치심을 가진 병아리였다. 자신이 뻑뻑거리며 시끄럽게 우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고 늘 필요한 울음만 취했다. 간혹 실수로 다른 곳에 똥을 누어버리면 그 노란 몸 전체가 별장게 달아오르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녀를 위해 다른 일에 열중하는 척을 하거나 그곳을 피해주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고 사실상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될수록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색의 깃털을 가진 닭의 품에 안겨있다 내게 왔는지 더 궁금해졌다. 물론,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은 있었다.

내가 집을 나오면 엘리자베스는 기다렸다는 듯 화장실 문턱을 넘어 변기위에 올라섰다. 그녀에게 변기위로 올라가는 것이란 꽤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에 올라 조심스럽게 섰다. 변기 안으로 빠질지도 모르는데도 그 위에 굳이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는 곧 변기안의 새파란 청결제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지었다.

우연히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던 날 그녀를 보았었다. 나는 오랫동안 화장실 문 뒤에 숨어 그녀를 지켜보고는 그녀가 어찌면 그리스에서 온 병아리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변기의 파란 물을 내려다보며 그곳의 바다를 떠올렸고 순간 나도 그녀의 바다를 떠올렸다. 어찌면 그녀는 그곳에서 너무 어려 바다는 보지 못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곳의 파랑을 그리워하는 것이야. 곧 나는 그녀에게 그리스의 바다를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화장실 변기 물을 더욱 파랗게 닦고 그리스 사진을 보면서 그곳의 바다색에 더욱 가까운 파랑이 될 수 있도록 용액을 희석했다.

어느 날 이였다. 우리는 쇼핑을 하고 집에 돌아왔던 날이였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고 티브이를 틀었다. 우리 둘 다 아주 지쳐 있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v에서는 비틀즈의 옐로우마린이 나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가 춤을 추었다. 춤을 추다니! 병아리가 춤을 추다니! 그런 것이 가능하거나 한가? 춤춘다! 맘소사! 나는 생각했다. 아아, 내가 춤추는 시절은 끝났구나. 그렇게 영원히 끝났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눈을 감고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

몇 분이었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아무 대답도 없다.

“엘리자베스?”

아무 소리도 없다.

“혹시 나한테 화났니?”

바깥은 조용하고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노래가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때 나의 발가락 사이에서 따뜻하고 농도 짙은 액체가 스며드는 것을 감지했다. 나는 의문을 갖고 축축해진 발바닥을 게으르게 들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엘리자베스가 그 밑에 죽어있었다. 그 온몸에는 아직 체온이 남아있었고 그녀의 몸은 사방으로 터져있었다. 눈은 떠져있었는데 완전히 부릅뜬 눈이었다. 몽개진 고구마케익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동안 그녀의 따뜻한 장기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양말은 점점 붉게 물들었다. 그녀의 배는 장기를 쫓처럼 뽏고 있었다. 당황함이나 죄책감이나 슬픔 같은 감정들은 그 후에 닥쳐왔다.

나는 엄마가 올 때까지 그것을 치울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다. 나는 깨진 화분을 보듯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밤이 되면서 그녀는 검게 변했다. 바나나처럼 그녀는 냄새를 풍기며 짓물러있었다.

엄마가 집에 도착했다. 시퍼렇게 얼어붙은 내 얼굴을 보며 별일 아니라는 듯 혀를 차며 피 묻은 양말이나 벗으라고 했다. 나는 영원히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그녀가 뛰어다녔던 마룻바닥을 드러내고 그 안에 그녀를 묻어주기로 했다.

그리고는 며칠간을 힘들어했다. 노란색 유치원봉고차를 볼 때에도 매일아침 빵에 버터를 발라먹을 때도 특히나 주방 수도꼭지위에 차갑게 걸쳐져 힘없이 늘어져있는 노란 수세미를 볼 때마다 그녀가 사무치듯 그리웠다. 어느 날은 커튼렛을 먹기 위해 겨자가 담긴 통에서 겨자를 부었는데 그녀가 겨자 통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꿈까지 꾸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슬픔은 몇 달 이상 가지 않았다. 1년쯤 뒤에는 뉴스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올 때조차도 그것이 무엇을 연상시키지도 슬프게 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으로 백숙이 나왔다. 엄마는 백숙을 했다면서 보온용 장갑을 끼고 그것을 내게 쓱 내밀었다. 그때 뽏얇고 고운 살결에 밥알과 대추를 안고 있는 부드러운 곡선의 백숙이 내게 말을 걸었다.

“네가 엘리자베스를 죽였다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무나 놀라 당황하면서 뒤로 주춤했다. 한동안 멍해져 뽏얀 그녀의 입김을 보았다.

그러나 곧 상황에 담담하고 침착해하게 대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곧 그녀는 자신이 엘리자베스의 고모할머니라며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네가 그녀의 노란 옷을 터트려 죽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녀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녀의 어머니는

시체가 없어도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했지, 우리 가족은 빈 관위에 꽃을 놓고 장례를 치렀어.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녀는 축축하게 젖은 몸을 들썩였다. 머리는 없었고 온몸에는 밥알들이 짝 채워져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슬픔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그리스에서 이곳으로 그녀를 보낼때엔 그녀는 아직 앞에서 깨어나오지 않은 상태 였지.”

“그렇지만.. 그건 사고였어요!”

“살인자.”

그녀가 분노에 찬 한마디를 던졌다. 아아. 그러나 나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잊은지 오래였기 때문에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나는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엄마는 등을 보이고 쟁반에 반찬을 담고 있었다.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난 조그맣게 속삭였다.

“전 체구가 너무 작아 비극엔 어울리지 않아요, 진정하세요. 엄마가 눈치 챌 거예요. 엄마 당신을 손질했다구요!”

그러나 그녀는 뜨거운 입김을 푹푹 내뿜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너의 살인을,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지 마, 어떤 식으로든 너의 살인이 정당화 될 수는 없어.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복수극이 펼쳐질 것이다.”

그녀는 식탁에 통통한 다리를 짹 벌리고 누워 내게 말했다고 곧 닥쳐올 조류독감을 경고했다. 나는 다시 그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엘리자베스 집안의 복수를 떠올리며 무서운 상상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변명조차 할 수 없었고, 그 후 나는 엘리자베스의 환영에 시달렸는데 노란 것들에 대한 공포와 계속 싸워야 했다. 공포는 잦아들었고, 나는 수세미는 물론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노란 물건들은 죄다 없애버렸을 뿐더러 심지어 오줌을 누고 나서도 그녀가 떠올랐는데 노란 오줌이 갑자기 엘리자베스로 변해서 울부짖는 것 같았다. 변기손잡이를 누르는 일은 내게는 힘든 일이었다. 마치 그것을 누를 때마다 내몸에서 배출된 노란 그녀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매번 그녀를 죽이는 일 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 후로 줄곧 오줌을 누고 나서도 변기손잡이를 누르지 않았다. 또한 그날 이후 조류독감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야만 했다. 나는 조류독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란 아주 불행한 일이고 그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죽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닭이 되어가다가 죽는 일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었다. 나는 아마 고개를 강박적으로 흔들면서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소리를 질러대야 할 것이다. 늦잠 자는 일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죽을 맛일 것임이 분명하다. 차라리 토끼나 햄스터가 되어가다 죽는 것이 나을게다. 적어도

귀여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동정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어쩌면 그들은 나를 더욱 사랑해줄지 모른다.

얼마 전 옆 반 친구 봉봉에게서 계란후라이가 되어가다 죽어가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봉봉의 삼촌은 어느 날 계란후라이를 잘못 먹고는 계란후라이독감에 걸려 증병에 시달렸다. 그는 점점 계란후라이가 되어갔고 늘 후추와 소금을 들고 온몸에 뿌렸다. 그는 줄곧 온몸을 납작하게 눕히고 폴짝 뛰어 뒤집었다. 그에게 가장 심각했던 고민은 자신의 볼록한 노른자가 터질까봐 두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데도 앉지도 누울 수도 없었고 늘 발을 동동거리며 서있어야만 했다. 아아! 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노른자가 터질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결국 그를 치료했던 의사가 제안했던 것은 그에게 늘 프라이팬을 들고 다니면서 프라이팬위에 앉도록 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조류독감에 걸려 닭이 된다면, 어떤 저명한 의사의 재치로도 나의 병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아침은 언제나 오고 닭은 우니까.

그 이후로 몇 십년간 줄곧 나의 마음에는 닭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동요가 일어났다. ‘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닭이라는 글자속의 받침인 ㄹ 과 ㄱ 이 마치 벌레처럼 스멀스멀 내 피부로 기어들어와 병에 걸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삼계탕닭백숙닭볶음탕안동찜닭후라이드치킨양념치킨버펄로윙닭봉닭갈비닭가슴살샐러드간풍기닭온반닭고기그라탕치킨카레치킨소테유자닭봉구이닭죽궁중닭찜치킨닭강정한방영양닭찜닭불닭옷닭닭조림닭볶음탕닭가슴살샌드위치닭고기크림소스오므라이스닭가슴살샐러드닭가슴살로만든마파두부덮밥닭갈비오믈렛닭고기완자닭계장닭안심마요네즈볶음닭가슴살스테이크닭탕수육닭가슴살롤크레이프닭안심살짜장덮밥삼계탕닭백숙치킨퀴사딜라닭똥집볶음닭고기바비큐샌드위치닭꼬치닭고기마늘볶음닭고기추장스테크닭고기카레국수초계탕닭강정닭강정덮밥개성닭갈국수팔진초면레몬소스닭고기닭고기오븐구이와망고살사소스닭산적닭찜구이치킨나초옥수수크림소스닭볶음레몬치킨샐러드닭가슴살크래커튀김닭얼큰탕닭고기커리소스튀김말이닭날개칠리소스닭찜닭떡갈비닭고기숙주볶음밥닭고기카레볶음닭고기참쌀구이닭고기바비큐닭가슴살스테이크라조기마늘닭다리구이양파통닭구이닭다리카레찜닭매운탕닭날개복어찜닭모래집볶음닭날개버섯조림날달걀계란후라이계란찜계란오믈렛삶은계란계란과자계란계란볶음밥계란누드김밥계란덮밥계란볶음밥계란간장스크림블에그아라킹달걀그라탱계란찜계란말이오므라이스달걀시금치핫케이크달걀젓국찌게달걀피자달걀피클달걀부침개계란국삶은계란흰자야채무침샐러드계란조림등을 받을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급식을 먹을 때에도 식당에 갈 때에도 원재료목록을 확인해야했다. 그것은 무척이나 불편한 일이었는데 나는 늘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의심을 해야만 했다. 오믈렛 가게 앞을 지날 때에는 늘 의식적으로 빨리 걷곤 했다.

1990년,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 봄과 초여름에 걸쳐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어느 숲으로 갔다. 공교롭게도 예정보다 이르게 되어 목적지에 새벽에 도착하였는데 저녁을 먹지 않아 몹시 배가 고팠다. 손잡이를 잡고 내리는데 갑자기 시장기를 잊게 하는 밤나무 냄새가 내 머리 위에 어우러져 났다.

분명 그곳은 가을 이었지만 바람은 한 점 없었다. 그것은 마치 무중력상태의 기분을 자아냈는데 조금은 두렵게까지 했다. 바닥에는 달빛 사이로 희끗한 밤가시들이 보였고 어둑한 밤나무 숲에는 무르익은 밤들이 투옥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일정한 비트와 리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이 발밑근처 어디론가로 떨어지고 있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더듬거렸다. 머리위로 날카로운 밤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바닥에 집중하면서 한발 한발 뽀족하고 위협적여 보이는 밤송이들을 발로 밀며 걷다가 그것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씩 밀어 옮겨질 때마다 밤나무는 밤을 떨어뜨려 자리를 메꾸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계속 밤송이가 들성한 길을 따라 움직였다. 나의 옷도 밤나무도 킁킁하게 보였다. 내가 오직 볼 수 있었던 것은 달빛이 밤가시 끝에 반사된 뽀족한 점들뿐였는데 그 점들은 달빛을 받아 번득였다. 나는 그것에게서 어떤 고요하면서도 맹렬한 기운같은 것을 느껴 단지 걸어서 지나가는데도 무엇이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허리를 숙여 밤 하나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뽀족한 껍질에 단단히 싸여 있었고 짙 벌어진 틈새사이로 불룩하게 튀어나와있는 밤알맹이가 도톰했다.

그때 왼쪽 뒷편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오더니 나에게 말을 했다. “오오 왜 이제야 나타났나요!” 그의 말은 독일어였지만 나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낭만의 극한을 잔뜩 머금고 있는 이 숲속에서 깊지만 너무나 이상한 애정을 품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남부터 내 마음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러나 그 불꽃은 비통하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다. 나는 그 이례적인 의미를 규정할수도 없었고, 그 희미한 강렬함도 규명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났다. 그리고 운명은 우리를 나란히 맺어주었다.

긴 여행의 여정이 끝나고도 우리는 서로 만나고 또 만났다. 그즈음 나는 여행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으므로 그런 사람과 사귀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느껴졌다.

